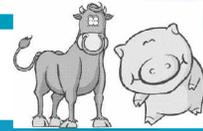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세 지속



여름철 회동 수산물 소비증이 대거 쇠고기 소비로 이동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소 값은 최근 가격 하락이 곧바로 출하물량 감소로 연결 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하락은 없는 가운데 보험세의 효능을 보일 전망이다.

소 값 향방의 최대 변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내 수출작업장 개선조치가 수입위생조건에 맞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늦어지면서 연기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도착되더라도 갈미와 뼈 부산물이 제외됐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적어도 올 해 안에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에서 발표한 '축종별 가축통계'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20만5천두 늘어난 178만3천두로 이는 산지값 강세에 따른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출하물량과 대기불량이 많이 늘고 있어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폭락도 예상된다.

돼지

휴가철 특수로 강보험세 유지

6월 돼지고기 소비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입돈육의 폭발적인 국내시장 침식과 학교 급식사고 관련 보도가 아무런 없는 돼지고기로 불똥이 튀어 폭락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불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도 4천원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불똥이 많이 모자란 상태라 볼 수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축종별 가축통계'에 의하면 모돈이 2004년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100만두에 육박하지만 전체 사육두수는 1천만두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질병이나 기타 문제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위에 모돈이 지치는 것을 막으면 생산은 많아지고 그로 인한 가격하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도 북빙으로 자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돼지값은 여름 휴가철 수요로 당분간은 강보험세를 유지하겠지만 8월 초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휴가도 끝나고 출하가 늘어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PRRS(생식기호흡기중후군)나 기타 질병에 의한 유사산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4/4 분기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트뉴스 제공>

